

한국사에서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장 석 흥**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어떻게 문화권을 연구할 것인가 |
| 2. 왜 문화권을 설정했는가 |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국민대 국사학과에서 문화유적(고적) 답사를 전공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3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사학과 답사라 하면 과목이수와는 관계없이 봄·가을로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과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 학기에 3, 4일 정도의 답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공 이수과목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럴 정도로 역사학계에서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일은 과외적 성격에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국민대 국사학과의 교과과정에 답사가 그것도 전공필수 과목으로 설정된 것은 장안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다른 대학과 달리 국민대 국사학과가 역사의 현장 답사를 강조했던 것은 문헌사료 못지않게 역사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대 국사학과를 상징하는 학풍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 이 글은 국민대 국사학과 40주년 기념 학술회의(2013.11.8.)에서 ‘한국의 역사지리와 문화권’이란 대주제의 총론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사학과 교수

2003년 이래 국사학과가 전국의 각 지역을 역사지리적 조건에 따라 ‘문화권’으로 구획하고, 안동문화권을 비롯하여, 경주문화권, 지리산문화권, 금강문화권, 태백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 6권의 ‘문화권총서’를 간행한 것은 그와 같은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¹⁾ 국사학과가 펴낸 문화권총서는 1차적으로 답사과목을 위한 교재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한국사에서 지역사 연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하여 문화권 연구는 기존 답사 및 지역사 연구 경향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역사 문화의 관찰대상을 ‘숲’과 ‘나무’로 비유할 때, 유물·유적을 중심으로 한 ‘나무’ 위주에서 벗어나 ‘숲’을 보려는 것이 주된 관점이었다. 유물·유적을 뛰어 넘어 보다 큰 틀에서 그와 같은 자취를 남긴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화권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여기에는 중앙 중심의 시각으로 가려지거나 함몰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복원, 규명하려는 의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단위로 재단하는 지역사의 범주를 지양하고, 역사지리적 조건과 배경에 따라 지역사의 권역을 재구성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즉, 한국사의 토대가 되었던 지역의 역사문화를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하여 재구성하고, 그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통사적 이해를 통하여 한국사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밝히기 위한 문화권 연구를 시도한 것이었다.

2. 왜 문화권을 설정했는가

전통사회에서 한국의 역사문화는 일정한 지역을 무대로 삼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자연지리적 조건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자취를 남겼다. 그런 과정에서 생활권, 학맥,

1) 그동안 문화권총서로 간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민대 국사학과,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2003.8 ; 《경주문화권》, 역사공간, 2004.2 ; 《지리산문화권》, 역사공간, 2004.8 ; 《금강문화권》, 역사공간, 2005.3 ; 《태백문화권》, 역사공간, 2005.9 ; 《영산강문화권》, 역사공간, 2006.4.

통훈권,²⁾ 상권³⁾ 등이 어우러지며 동질성의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바, 문화권이란 그 같은 역사문화의 공간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권은 행정구역상의 구분과 달리 자연지리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대체로 강문화권·분지문화권·산문화권·섬문화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형으로 볼 때 강이 발달한 서부 지역에서는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 형성되었고, 산악으로 이어진 동부 지역에서는 주로 분지와 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를 일구어 나갔다. 자연 경계에 의한 지역문화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수백 년, 때로는 1천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문화권의 고유성과 특성을 간직해 나갔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계승 발전시켜간 문화적 정체성은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엮는 기본적 요소가 되었으며, 이들 지역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한국 문화의 전체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권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중·소 분류의 문화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분류 문화권이라면, 영남·호남·기호·관서·관북·해서 등지의 권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역사문화는 크게 5, 6개의 대분류 문화권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남이라 해도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안동지역과 경주지역의 문화도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대문화권 분류로는 지역문화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한데 묶어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리적

-
- 2) 통훈권이란 혼인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지역적 범주를 말한다. 전통사회에서 지배계층의 혼인은 신분과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히 규율되어 왔다. 가문의 대사였던 혼인은 서로간의 소통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권역은 일반적으로 문화권을 기준 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3) 전통사회에서 상권은 주로 장시를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 17세기 이래 번성한 장시는 교통의 요충지나 하천, 포구를 이용한 물길과 바닷길 등을 이용해 발달했다. 영산강문화권의 경우 나주·광주·순천·영암·영광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중에도 우도에는 나주, 좌도에는 광주가 중심지였다. 우도의 중심지 나주는 영산강 일대의 지역을 아우르는 상권을 형성했고, 좌도의 중심지 광주는 북동부권의 여러 지역을 상권으로 아울렀다.(국민대 국사학과, 《영산강문화권》, 242~243쪽).

조건과 문화적 성격을 감안할 때, 대분류 문화권의 하위에 위치한 중분류의 문화권 정도가 지역문화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검출할 수 있는 규모와 권역이 아닌가 생각된다.⁴⁾ 때문에 국사학과에서 간행한 문화권총서는 이러한 중분류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중분류 문화권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연지리적 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형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강문화권·금강문화권·영산강문화권·낙동강문화권·예성강문화권·대동강문화권·압록강문화권 등이 있으며, 분지문화권으로는 안동문화권·경주문화권, 산과 산악지대를 무대로 펼쳐진 산문화권으로는 지리산문화권·태백문화권·백두산문화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탐라와 강화문화권은 섬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분류의 문화권은 13, 14개 정도로 구획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에 따라 중분류 문화권은 그 안에서 다시 2, 3개의 작은 문화권을 아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소분류 문화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령 지리산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진주·남강 일대와 남원·섬진강 일대의 소문화권이 각기 병립하고 있듯이⁵⁾ 소분류의 문화권은 중분류 문화권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분류 문화권의 실체는 1895년 을미개혁 때 지역의 민심과 풍습에 따라 8도를 23부로 개편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3부 체제 자체가 소분류 문화권이라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소분류 문화권의 권역 내지 분포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23부는 한성부·인천부·홍주부·공주부·충주부·전주부·남원부·나주부·진주부·대구부·안동부·동래부·강릉부·춘천부·개성부·해주부·평양부·의주부·강계부·함흥부·경성부·갑산부 등이었다. 이는 행정상의 구역이라 해도, 행정과 지역의 민심과 풍습을 결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권의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시대 변천에 따라 경우 같은 곳이

4) 가령 안동문화권의 권역은 서·북으로 소백산맥 줄기를 타고, 동·남으로는 보현산과 팔공산에 이르는 산악지대의 분지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퇴계학맥을 기준으로 볼 때 안동을 중심한 반경 70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 지리산문화권에는 서쪽의 남원·곡성·구례·광양·순천 등지의 섬진강·남원문화권과 동쪽의 진주·하동·산청·함양 등지의 남강·진주문화권이 포함되어 있다.

크게 쇠락한 점도 눈에 띄지만, 근대 무렵 23부의 소재지가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떻게 문화권을 연구할 것인가

한국의 역사문화는 수천 년을 거치면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문화권을 형성하였던 바, 문화권은 한국사의 1차적 무대이자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권은 역사적 생명체로서 각기 존재 양상을 달리 하였다.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탐라문화권의 경우 육지와 달리 1천 5백 년 동안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⁶⁾ 신라의 경주문화권은 1천년의 역사 문화를, 퇴계 학맥을 근거로 조선시대에 형성된 안동문화권의 유교문화는 5백년의 세월을 두고 계승, 발전되어 갔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 문화권은 각기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문화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며, 문화적 교차 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낙동강 문화권의 경우, 안동문화권과 밀접한 중상류 지역에서는 퇴계 학풍이 크게 떨쳤던 것에 비해, 하류 지역에서는 지리산문화권에 바탕을 둔 남명학파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⁷⁾ 그런가 하면 행정구역상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일대를 권역으로 형성된 지리산문화권의 경우, 섬진강 지역의 문화와 남강 지역의 문화가 언어나 관습 등에서 상이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리산을 매개로 소통의 길을 열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해 나가기도 했다.⁸⁾ 그런

-
- 6) 일반적으로 탐라가 멸망한 것은 7세기 초로 알려지고 있지만, 탐라인들의 삶과 문화는 13세기 탐라총관부가 설치될 때까지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7)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남명학파가 쇠락하는 가운데 퇴계학맥은 영남지역으로 더욱 확산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다.
 - 8) 지리산문화권은 지리적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지리산을 무대로 고대 이래 고유신앙에서 불교·유교·도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배태되고 성장하면서 한국 사상의 산실이자 보고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지리산을 무대로 의병이 영호남을 넘나들었고, 근대에서는 동학 농민전쟁 때 순천·광양에서 일어난 김인배의 영·호대도호소가 진주·하동 일

점에서 문화권의 권역은 문화권 간의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이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시대 변천에 따라 문화권의 권역과 특징도 변모해 갔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문화권의 특성과 정체성은 한국 문화의 보편성으로 모아져 나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같은 문화권의 실체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사 중심의 시각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역사’, 즉 문화권의 역사가 지닌 고유성과 특성을 찾는데 소홀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도·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에 짜 맞추어 역사를 재단하는 몰역사성이 문화권적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령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의 행정 단위로 역사를 구성하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함께 하거나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이 공유했던 역사문화를 분절시키는 예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역사문화의 자취 역시 분절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문헌사학에 치우쳐 역사현장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실증과 문헌을 앞세운 식민사학에 함몰되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⁹⁾

역사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통해 일구어낸 산물이다. 강과 산, 물과 들로 어우러진 자연 환경은 삶의 터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천(天)·지(地)·인(人)의 삼위일체론과 같은 전통적 자연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역사학은 태생적으로 지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고대 이래 각종의 역사서에서 ‘지리지’를 역사서술 체계에 포함시켰던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전통 사서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리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사서의 지리지에서는 자연지리 뿐 아니라 인심·풍속 등의 인문지리도 포함한 인간의 풍토 전반을 다루었다. 이것은 역사서 편찬 체계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통은 고려로 계승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대로 진출하여 활약하기도 했다.

- 9) 역사지리적 전통은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심하게 왜곡 변질되어 간 것으로 파악된다. 일제는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식민사학을 동원하였고, 실증을 앞세운 식민사학은 문헌을 통해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 나갔다.

와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동국지리지》 등의 편찬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리지의 시대를 열어 나갔다. 실학에 와서는 다양한 역사지리서가 나타나면서, 전국의 풍토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발전해 갔다. 실학의 역사지리서에는 지명·영역 등 지리적 조건은 물론 수리(水利)·특산물·장시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화를 서술하는 한편 인심·풍속 등도 다루었다.¹⁰⁾ 또한 역사지리서에 해당 지역의 지도까지 포함하면서 총체적 역사지리서를 편찬하였다.

그런데 정작 '역사지리'란 용어를 학술적으로 정립한 것은 역사학에서가 아니라 지리학 분야에서였다.¹¹⁾ 19세기 유럽에서 생겨난 역사지리학은 '현재의 지리'에 대한 '과거의 지리' 내지 '지리의 역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지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역사지리'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적 지리' 내지 '역사와 결합한 지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이 되고 만 것이다. '역사지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만을 놓고 볼 때, 역사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제각기 사용하는 '역사지리'의 용어는 충돌 내지 이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권 연구는 '역사지리학'과는 다른 '지리역사학적'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역사학'이란 용어가 생경스럽지만, 문헌사학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리역사학적 방법론은 문헌자료를 통해서만은 좀처럼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0) 대표적인 지리서로 꼽히는 이증환의 《택리지》(1751)는 사민총론(四民總論)·팔도총론(八道總論 : 평안도·함경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복거총론(卜居總論 : 地理·生利·人心·山水)·총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도총론에서는 도별로 서술하고 있으나, 도내의 2차적 지역 구분은 하천과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령 평안도지역을 청천강을 경계로 삼아 청북(淸北)과 청남(淸南)으로 구분하고, 황해도지역은 멸악산맥을 경계로 이북과 이남으로 구분하고, 충청도 지역은 차령(車嶺)을 경계로 남북으로 구분하여 차령 이북은 경기에 가깝고 남쪽은 전라지방에 가깝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책의 절반 정도로 서술 한 복거총론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지리는 풍수(風水)에서 말하는 지리의 뜻이고, 생리는 생활을 운택하게 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말하고 있다. 생리에서는 비옥한 토지, 어염과 내륙의 곡물과 면화가 교역되는 위치, 그리고 해운과 하운의 요지 등이 강조되고 있다.

1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2011, 참조.

한 예를 들면, 제주(탐라)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해양문화적 요소보다 농경문화적 요소가 짙었던 이유가 무엇인지,¹²⁾ 제주의 풍토와 해안가 지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제주의 해안가는 대부분이 선박을 정박하기 어려운 자연적 지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계절 바람과 폭풍이 심한 풍토가 해양문화적 요소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풍토와 지리적 조건을 역사적 문제와 매개할 때 역사는 물론 지역문화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역사문화는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며, 자연과 조화를 통해 생성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치게 문헌 위주나, 주변 환경을 외면한 채 사물 그 자체에만 몰두해 왔다. 때문에 역사적 사건과 자취들이 왜 그곳에서 일어났고,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해명해 낼 수 없었다. 문화권적 접근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영산강문화권에서 전개된 5~6세기 마한의 해상교류, 9세기 완도의 청해진, 10세기 나주의 해상호족, 13세기 진도의 삼별초항쟁, 16세기 울돌목의 명량해전 등은 대체로 개별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왕인·장보고·오다련·이순신 등의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한 경향이 짙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화권적으로 접근하면, 뱃길에 능숙했던 이 지역 사람들의 지혜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같은 역사적 활동과 사건이 전개될 수 있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5~6세기 마한의 웅관문화가 11세기 강진의 고려청자로 계승, 발전해간 것도 문화권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¹³⁾

그리고 지역문화의 권역, 즉 문화권은 행정 구역과 달리 지역문화가 걸어진 자취를 바탕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원과 충청 지역을 거쳐 경기 지역으로 흘러드는 한강지역문화의 권역이 행정 구역과 일치하지 않듯이, 지역문화의 권역은 행정 구역과는 다른 범주를 이루며 형성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금강지역의 문화 권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이어주는 금강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볼 때, 충청도와

12) 제주를 잇는 도로는 주로 중산간지대를 연결하는 산길이 발달하였으며, 해안도로가 열리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였다.

13) 국민대 국사학과, 《영산강문화권》, 18~33쪽.

전라북도를 가르는 경계선이지만, 지역문화적으로는 이들 지역민 공동의 생활무대였고, 이들을 생활공동체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어 왔다.¹⁴⁾ 그렇게 보더라도 지역문화는 행정 구역 단위로 구분하기 보다는 생활공동체적 범주에서 권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며, 자연과 조화를 통해 생성되어 왔다. 때문에 문화의 자취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과 문화를 규명하는 제 분야 학문들의 연대 내지 공동 연구를 통해 진실과 원형에 접근해 가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문화의 자취를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 의존하거나 편향된 채 탐색해 온 것이 적지 않았다.

판소리의 경우를 들어도, 국문학과 민속학의 전유 대상만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을 함께 살펴야 된다는 점에서 이들 학문의 종합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판소리는 경기 지방의 중고제, 남부 지방의 남원·구례·곡성을 중심으로 한 동편제와 나주·보성의 서편제가 진한다. 동편제가 남성적인 소리라면, 서편제는 여성적인 소리이며, 중고제는 그것을 절충한 것이다.¹⁵⁾ 이러한 소리 구성은 자연지리적 조건 및 사회경제적 기반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동편제는 지리산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성행하였고, 서편제는 영산강 유역에 펼쳐진 들판을 배경으로 전승·발전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결국 판소리의 소리 구성도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국문소설이 성행했던 것에 비해 영산강 권역에서는 가사(歌辭) 문학이 발달했던 점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즉 자연지리 조건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14) 국민대 국사학과, 《금강문화권》, 18~42쪽.

15) 판소리학회, 《판소리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2 참조.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운봉·구례·순창 등지에서는 동편제, 서쪽의 광주·나주·보성 등지에는 서편제가 많이 불렸다. 동편제는 웅장한 지리산처럼 호방하고 남성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반면, 서편제는 정교하고 감칠맛이 있으며, 부드럽고 굴곡 많은 서남해의 해안선처럼 부드럽고 여성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다.

4. 나오는 말

엄밀히 볼 때, 문화권 연구란 아직 가설에 불과 할 런지 모른다. 연구 시각이나 방법에서도 체계를 논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유적 답사를 강조해 온 국민대 국사학과와 학풍에 따라 문화권총서를 간행하면서 문화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권 연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헌자료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역사의 실상을 역사 현장의 조사·연구를 통해 보다 온전하게 복원하려는 것이 문화권 연구의 소박한 꿈이다. 그렇지만 앞서 보듯이 문화권 연구는 시대사에 머물지 않는 통사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리역사학적 접근 외에도 다양한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권 연구를 위해서는 지난한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로서 20~3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권이 존재하고, 이들 문화권이 한국 역사문화를 일구어내는 토대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역사적 생명체로서 문화권의 자취와 성격을 규명, 복원하는 작업은 중앙사 중심에 치우친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중환 찬, 최남선 교, 《택리지》, 조선광문회, 1912.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고 62, 1971.
이찬, <택리지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애산학보》 3, 1983.
판소리학회, 《판소리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2.
국민대 국사학과,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2003.
국민대 국사학과, 《경주문화권》, 역사공간, 2004.
국민대 국사학과, 《지리산문화권》, 역사공간, 2004.
국민대 국사학과, 《금강문화권》, 역사공간, 2005.
국민대 국사학과, 《태백문화권》, 역사공간, 2005.
국민대 국사학과, 《영산강문화권》, 역사공간, 200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2011.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의 역사문화를 ‘문화권’으로 구획하여 지역사 연구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뜻에서 작성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한국의 역사문화는 일정한 지역을 무대로 삼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자연지리적 조건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자취를 남겼다. 그런 과정에서 생활권, 학맥, 통훈권, 상권 등이 어우러지며 동질성의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바, 문화권이란 그 같은 역사문화의 공간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권은 행정구역상의 구분과 달리 자연지리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대체로 강문화권·분지문화권·산문화권·섬문화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형으로 볼 때 강이 발달한 서부 지역에서는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 형성되었고, 산악으로 이어진 동부 지역에서는 주로 분지와 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를 일구어 나갔다.

그리고 문화권은 역사적 생명체로서 각기 존재 양상을 달리하였다.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탐라문화권의 경우 육지와 달리 1천 5백 년 동안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신라의 경주문화권은 1천년의 역사 문화를, 퇴계 학맥을 근거로 조선시대에 형성된 안동문화권의 유교문화는 5백년의 세월을 두고 계승, 발전되어 갔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 문화권은 각기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로서 2,3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권이 존재하고, 이들 문화권이 한국 역사문화를 일구어내는 토대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역사적 생명체로서 문화권의 자취와 성격을 규명, 복원하는 작업은 중앙사 중심에 치우친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 대문화권, 중문화권, 소문화권, 역사지리, 지역문화, 생활권, 통훈권, 학맥

Abstract

What Is “Cultural Area” In Korean History?

Chang, Seok-Heung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in order to newly try study of regional history by dividing Korean historical culture as “Cultural area”.

In traditional society, Korean historical culture had been developed in limited areas as build up living communities. Thus conditions of physical geography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made each people's lives different. In this process, historical culture areas of homogeneity could be created by mingling with living spaces, academic lines, zone of marriage networks and trading areas. The term “Cultural area” is conceptualized this historical culture spaces.

Cultural area was formed by depending on conditions of physical geography in contrast with administrative district. Mostly cultural area was divided as “River cultural area”, “Mountain cultural area” and “Island cultural area”. Therefore, western part of Korea that has many rivers was formed “Cultural area” around the rivers. On the other hand, eastern part of Korea that has many mountains was formed “Cultural area” around mountain and basin.

Cultural area was existed as a historical being that had an each different aspect. Tamla (Jeju Island) cultural area that mixed farming culture and marine culture had been keeps its peculiarity and originality in 1,500 years. Kyungju cultural area was developed by Silla's history of 1,000 years. Andong cultural area that formed by Yi Hwang's academic line was inherited for 500 years. These “Cultural area” could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dentities through such a process.

Korea cultural area divided 20~30 cultural areas by historical culture sections. These cultural areas formed the basis of developing Korean historical culture.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area's characteristics is positively necessary for opening a new prospect of Korean history studies that was biased towards central history.

Key words : Cultural area, Academic line, Zone of marriage network, living space, Local culture, Historical geography, Small cultural area, Medium cultural area
--

투고일 : 2014. 1. 20

심사일 : 2014. 1. 29

게재확정일 : 2014. 2. 13

КСІ